

2015년 U대회 개최지 결정 D-100

8개도시 유치 경쟁...유럽표 잡아야 승산

캐나다 에드먼턴, 광주 유치 최대 라이벌 러시아 카잔, 광주 지지 표명 中도 공감

광주시가 유치를 나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는 6개국 8개 도시가 유치를 희망하거나 유치전에 나서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강력한 라이벌은 캐나다 에드먼턴이며, 2013년 U대회 유치에 나선 스페인 비고, 폴란드 포즈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도시다. 이들 도시들은 오는 18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막하는 '2009 동계 U대회'에서 광주시와 첫번째 공식 유치전을 펼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개최지 결정(5월23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유치 희망 도시는 대만 타이페이, 캐나다 에드먼턴, 브라질 리오, 브라질리아,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 비고, 그라나다 등 6개국 8개 도시다.

광주시에 판권까지 경합을 펼칠 대상으로 꼽고 있는 에드먼턴은 지난 1983년 하계U대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스포츠 개최 역량을 인정받은 도시다. 토론토에 이어 캐나다의 제2도시로 불리는 에드먼턴은 각종 스포츠 경기장 등 체육인프라와 도시경쟁력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대회 유치과정에서 광주시와 함께 고배를 마신 스페인 비고는 인구 42만명의 소도시로 스포츠 인프라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브랜드를 갖고 있다. 비고가 지난 대회 유치과정에서의 경험을 광주시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광주시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만의 타이페이도 대회 유치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같은 아시아권에서 광주시와 타

이페이 두 개 도시가 경합할 경우 개최지 결정 표결에 참여하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들의 표를 잡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타이페이는 대만의 수도로 빼어난 접근성과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다. 폴란드 포즈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 상대.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공동 개최지인 데다 농구, 조정, 카누 등 각 부문에 걸쳐 유럽 챔피언십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스포츠 도시로서 이미지가 강점이다.

이들 도시들은 오는 17~28일 중국 하얼빈

에서 열리는 2009 동계 U대회에 참석, 광주 U대회 유치위원회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경쟁 도시들이 무시할 수 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지난 2013년 대회 유치과정에서 노후를 축적하고 FISU 집행위원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만큼 유치전략에서 타 도시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자체분석이다.

또 2013년 대회 유치전을 펼쳤던 러시아 카잔이 최근 광주시와 우호 교류협력을 맺고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중국 측도 광주 U대회 유치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쟁도시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회 개최지 결정에 최대 관건인 유럽지역 FISU 집행위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

력을 쏟고 있다.

오는 5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총회에서 개최지 결정 표결에 참가하는 집행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3명이 유럽 집행위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대회 유치를 러시아 카잔에 내준 것이 유럽 표를 공략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깔려있다. 집행위원들은 유럽권(13명), 아시아권(7명), 아프리카권(4명), 미주지역(3명)으로 분포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승부의 관건은 대회 개최지 결정권을 쥐고 있는 FISU 집행위원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득표·유치전략으로 시민들의 꿈인 U대회를 광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총력을 모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결정이 꼭 100일(5월2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에는 광주시를 포함해 6개국 8개 도시가 유치 의사를 밝혀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무단의 광주 방문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U대회 유치 가교 역할 하겠다”

광주 U대회 유치위원장 정의화의원

“2012년 여수엑스포로 알려진 광주와 전남을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로 한 번 더 알려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오후 광주 감내중건벤치센터에서 열린 U대회 유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위원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구 동구)은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열심

히 도울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 의원은 “4월에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무단이 한국에 오면 곧바로 청와대로 데려가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건의했고, 한승수 총리에게 5월 개최지 결정 장소인 벨기에에 함께 갈 것을 권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경련 등 경제계 인사를 만나 해외지사를 통한 U대회 홍보를 당부하고, 각국의 대사관을 활용한 유치전도 계획 중이다”고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FISU 집행위원을 꼭 만나 유치활동을 펼 수 있도록 국회의장



1970년대 중반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호남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영호남간인협회의 회장,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동서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도 힘써 여러 내 호남 장구역을 자임하고 있다.

에게 부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계화 시대에 광주가 뒤처지지 않도록 시민단체는 물론 광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4선 의원인 정의 의원은 부산고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청별관 갈등 극적 타결되나

5월 단체 내부 진통속 합의 마지막 숨고르기

‘박주선 중재안’ 수용 여부 시민들 촉각

도청 별관 철거를 반대해온 ‘옛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공대위(공대위) 지도부가 11일 중재자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려 7개월을 끌어온 이번 갈등이 해결될지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공대위에 참여한 5월 단체들이 내부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는 마지막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별관 철거 논란이 마침내 타결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1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보도자료 통해 공대위 지도부가 자신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히면서 부터 시작됐다.

‘문화전당 건립 공사 재개관련 합의서’라는 제목의 중재안에는 추진단이 광주 시내에 문화중심도시의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되 5·18 민주화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5월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한 (가칭)상징조형물 건립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 7개항의 중재·합의안이 포함돼 있다. 결국 5·18 중요 유적의 하나인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데 동의해주는 대신 5월 정신을 선양하고 5월 단체들의 향후 영향력을 확대해줄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의 중재안은 당초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5월 단체들의 ‘복안’이 대폭 반영된다는 별관 철거를 골자로한 문화전당 설계안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시아 문화중

심도시 추진단이 거부할 수 없는 최종안이라는 타결 전망을 밝혔다.

또 상징물 건립의 경우 추진단이 이미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대위의 최종입장이 정리될 경우 7개월째 진행된 도청별관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더욱이 공대위 집행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크게 의식하고 있어 대응적인 차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5·18 유족회(회장 정수만), 부상자회(회장 신경진), 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 등도 중재안 수용을 전제로 이날 각 단체별로 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공대위 참여 5월 단체의 이사회 과정에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되 5·18 민주화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5월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한 (가칭)상징조형물 건립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 7개항의 중재·합의안이 포함돼 있다. 결국 5·18 중요 유적의 하나인 도청 별관을 철거하는데 동의해주는 대신 5월 정신을 선양하고 5월 단체들의 향후 영향력을 확대해줄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공대위가 최종합의안을 도출해 박 의원에게 넘길 경우 최종 합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추진단은 일단 박 의원과 최종 합의가 남아있지만, 별관 철거라는 대응적인 안이 나온다면 이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도청별관 문제가 극적 타결점을 찾은 지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진표 의원 도심 준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발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1일 도시에 있는 준공항을 이전하는 내용의 ‘도심항 공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준공항 이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부가 특별회계를 통해 국토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도심 준공항공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지역에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 준공항은 건강침해와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으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원활한 기동훈련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미아가

한울정 피부관리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11 (동천동 11번지) 한울정 피부관리실

문의: 02-2222-1111